

시민들의 행복 실현 어느때보다도 '활발'

전주시의회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전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고 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주시의회의 2019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조례안 47건 등 안건 총 86건 처리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지원하는
조례 직접 발의 복리증진 힘써와



전주시의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1차례의 정례회와 5차례의 임시회 등 6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47건, 동의안 15건, 결의안 2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의원들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운영위원회

또한 다양한 주제의 7건의 시정질문과 57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전주의 희망찬 내일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박병술 의장 "사랑받는 의회 구현"

박병술 의장은 제11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해왔다.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사명을 강조한 박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시민의 편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힘쓰면서,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원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모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70만여 명이 참여했던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을 확인했다는 박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이면서, 전주시의회가 지방분권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화 부의장 "내실 있는 의회 운영"

강동화 부의장은 지방의회와 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시민의 편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부의장으로서 의정을 보좌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 예산의 확충에 힘쓰고, 현안의 우선순위에 맞게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강 부의장은 지역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구사항에 최대한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힘쓰고 있다. 강동화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전주시의회에 보내주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부의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체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의회 상임위 의정활동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회기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김현덕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10차례 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8건, 조례안 9건, 규칙안 8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정활동과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을 승인하여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폭 넓게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추가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아냈다.

시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행정 개선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감시·견제하고,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며 시민의 뜻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356회 임시회부터 제361회 정례회까지 8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전주 특례시 지정·축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하기로 다짐했다.



백병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위원회는 또 전주공남학사, 김치가공유통중합센터 신축부지 현장,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및 인라인롤러경기장,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현장 등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생생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 복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생산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경신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위원회는 올 한 해 6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 19건, 동의안 8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다뤘다.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되어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했다.

위원회는 또 전주동물원, 덕진보건소 신축 공사현장, 전주수화원 및 삼천동 차고지 등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시책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전통문화 보전·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체육문화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용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형배 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위원회는 올 한 해 9차례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7건, 동의안 8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풍제지관 서익현 보수공사 현장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서울에서 개최된 2019서울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지속가능 녹색생태도시 조성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건설 행정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제356회 임시회부터 제361회 정례회까지 6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고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욱 위원장

박선준 부위원장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시민교통분야 전문직식의 습득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찬회를 열었으며, 배미살마를 진입로 공사현장 등을 방문해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현장을 찾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투명하게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주시 전반기 예산안과 결산의 종합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ანი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

위원회는 주요사업과 시민을 위한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투자,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편성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과 과도한 불용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를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후적 처분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 심의로 건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송효철 기자